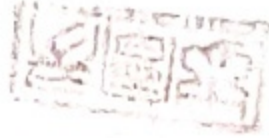


## 진 정 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는 우리민족의 번영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쉬임없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본 충현교회는 1953년 설립이후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번지에 소재하여 교세가 확장되던중 1970년 12월 30일 강남구 역삼동 665의 1(당시 잡종지) 번지에 9,000평을 매입하여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족과 사회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교회당 신축부지중 시당국의 도시계획 환지로 3,000평을 제공하고 나머지 6,000평 대지위에 세계적인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당국은 주거 전용지라는 이유로 대형건물 신축을 허락지 않던중 1975년 12월 9일자 일간지를 통해 본교회 성전대지를 갑자기 학교부지로 공고하였습니다. 본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관계부처에 교회부지 환원을 호소하였고 마침내 서울시장의 환원약속을 받아 그 후 3년이 지난 1978년 6월 20일로 본 대지를 교회는 다시 환원받게 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즉시 건축허가서를 제출하였으나 당국은 이해키 어려운 이유를 들어 허가를 지연해 오던중 700평 규모의 아동공원 시설을 교회가 제공하면 건축허가를 하겠다는 납득키 어려운 요구를 해왔습니다. 당시 교회로서는 1만명이 넘는 성도를 더이상 수용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백방으로 이의 시정을 원하면서 허가를 요청했지만 당국의 강요에 못이겨 결국 각서를 쓰고 수락함으로 1980년 2월 14일자로 건축허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교회의 성도들은 피눈물나는 기도와 헌신의 결과 8년 8개월만에 1988년 12월 21일 세계적인 대 성전을 하나님께 헌당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당시 각서를 써준 아동공원 문제로 아직껏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회가 정부당국과 약속한 것을 파기할 뜻은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재 2만명이 넘는 교세를 가진 충현교회 앞마당이 아동공원화 된 것을 상상해 보시면 이 진정서를 왜 올리고 있는지 헤아리실 수가 있을줄 압니다. 금년 8월에 아시아선교대회(약2,000명 목사님들이 해외에서 오심) 그리고 7월에 세계 기독의사 선교대회(약 1,200명 기독인 의사들이 전 세계에서 참여 할 것임)등 수없이 많은 각종 국제회의가 현재도 그리고 미래



에도 열릴 이 성전 앞마당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사료되어 불가피하게 제출한 공원설치 각서를 폐기하시고 본 교회당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진정하는 바입니다.

충현교회는 민족의 성전이고 세계 최대규모의 개신교 예배당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는 장으로 만들것이며 국가 발전과 사회 정의를 위해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산 9번지 약 6만5천평위에 충현복지마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회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사랑의집을 건축하므로 탁아소, 노인정, 장애인 교육시설 등 사회봉사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미 교회는 담벽을 쌓지않고 누구나 공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공원부지 조성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뿐더러 교회에 엄청난 부담과 각종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어 2만5천여 충현가족의 이름으로 공원부지 시설 해제를 앙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건축허가서 및 평면도와 공원배치도 사본 각 1통

1. 허가당시의 본교회 각서 사본 1통

1990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5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당회장이 종윤

